

여야 '대화록 실종' 진실규명 방법 정면 충돌

“이지원에 삭제 기능 없다”

與 “관련자 검찰고발” 野 “특검 도입을”

정치권 일각선 “정쟁 중단 출구 찾아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의 진실규명 방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 참여정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민주당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무현재단 본부장은 “일방적 검찰 고발은 또 다른 정쟁을 만들어 국정원 국조로 풀리는 이목을 흐트러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대화록 불법 유출 등 자신들의 잘못된 일질

거론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전횡적 수법”이라며 “대화록 실종과 불법 유출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한꺼번에 해소할지가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를 할 때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특검 수사 도입과 더불어 노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건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사건은 특검을 통해 불법 유출과 대선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의 본질인 (NLL 포기 발언)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의결대로 남북정상회담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열람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정국'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여야 내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대화록 실종 경위는 검찰이 밝히도록 맡기고 정치권은 더 이상 소모적 공방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이 상황을 조기 종결하고 정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여야가 냉철하게 할 때”라며 “정쟁을 빨리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史草 실종 논란 관련...회의록 미등재 가능성은 남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애초 이 시스템에는 문서 삭제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단계에서 회의록이 누락됐거나 혹은 애초에 회의록 보고서가 이지원에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5일 이지원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전문가 A씨 및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는 개발 단계부터 보고 문서의 수정 기능은 있지만 삭제 기능은 설치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보고서가 작성되면 이를 인위적으로 지울 수가 없다. 문서를 작성한 청와대 직원이 문제가 될까봐 이를 지우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애초부터 이지원에 회의록이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계속된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3차 TV토론 화면을 보이며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 의원, '새정치경제아카데미' 초청 강연

“민주당, 호남 독점주의 벗어나 안철수 세력과 경쟁해야 발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5일 “민주당은 유일한 대안이라는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호남에서도 경쟁원리가 도입될 때 호남의 정치발전은 실현될 수 있고 민주당도 전국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새정치경제아카데미' 초청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더 이상 '묻지마 지지'에 의존하지 말고 호남에 대한 실질적 기여와 당 개혁을 통해 호남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간의 관계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뼈를 깎는 개혁을 하고 안철수 세력과 통합된 개혁정당을 만들어 거대 보수정당인 새누리당과 맞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민주당에 당장 이런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호남에서는 양 세력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새누리당과 경쟁해야 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연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일후보로 공천하는 경쟁과 연대의 투 트랙 전략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개혁에 충실한 세력, 소망권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결국 지방선거 이후 야권은 승리한 세력을 중심으로 통합된 개혁정당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렇게 탄생한 개혁정당이 2016년 총선승리와 2017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대화록' 후폭풍...내홍 심화

非盧 '文 책임론' 제기...당 지도부도 '불협화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이후 민주당 내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비노(비노무현) 인사'들이 문제의 의원과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개적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대화록 실종 규명과 '서해 NLL(북방한계선)의 진실' 확인 작업에 대한 분리대응을 선언, 출구찾기에 한창이지만 당 내부 균

열도 당력 결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자청, '문재인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어제는 민생은 내팽개치고 지켜야할 원칙을 버린 채 정파의 이익을 위해 대화록 공개, 정계은퇴를 운운하면서 나라를 뒤집었던 분이 오늘은 일방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NLL논쟁을 중

시각하고 한다”며 “무책임의 극치로,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의원을 향해 “더 이상 당에 해를 끼치지 말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말라”며 “바른 정치인은 비겁해선 안 된다. 당을 위기와 혼란에 처하게 하고 소모적 정쟁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원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한 말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까지 포함해 본인이 현명하게 거취를 결정하리라 본다”고 답했다. 이날 회견을 당 지도부는 만류했지만 막지는 못했다. 더욱이 당 지도부와 문 의원 쪽이 대화록 실종 진상규명 해법으로 특검을 제안한 상황에서 조 최고위원은 “특검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비노 중진인 김영환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문 의원은 현 사태의 가장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여론 악화 발언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셨으면 한다”며 “엎자고 해서 덮여질 상황이 아니다. 역적이 무너지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의원 측은 내부적으로 불

협화음을 내뿜고 있다.

이제 문 의원 측은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을 내뿜고 있다.

이제 문 의원 측은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을 내뿜고 있다.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p>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p> <p>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p> <p>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p> <p>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p>	<p>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p> <p>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p> <p>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p> <p>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p>

행복한 부자들을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분양완료

2013년 9월 1일 오픈예정

파격적인 임대와 & 분양가

<p>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p> <p>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p> <p>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p> <p>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p> <p>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p> <p>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p> <p>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p> <p>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림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p>	<p>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만원 / 분양가 5억750만원</p> <p>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만원</p> <p>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만원</p> <p>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p> <p>지상 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만원</p> <p>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p> <p>지상 3층~4층 영화관 (인점확정)</p> <p>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p>
---	--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